

### **내년 농림부예산 7조6,425억**

내년도 농림예산이 농림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5백32억원이 늘어난 7조6천4백25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농림예산은 올 농림예산 7조8천74억원보다 2.1%가 줄어들었다.

농림예산 가운데 농림부소관은 6조8천4백1억원으로 올해보다 5% 줄어들었으며 특히 관심을 끌었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부분은 당초 1조5천억원 규모의 부채대책 자금만 6.5%에서 5%로 1.5%인하하려 했지만 1%포인트만 내리는 대신 중장기 정책자금과 재해복구자금을 1%씩 금리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따른 농가부담경감 예산은 5백3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농림부소관은 배수개선사업 2백50억원, 지역특화사업 70억원, 충남천안물류센터 18억원등으로 증액됐고 농진청의 지역농업개발센터추가 22억5천만원과 산림청의 헬기운영 1억5천만원, 철새생태조망시설 3억원 등의 예산이 각각 늘어났다.

### **배합사료가격 당분간 안정세 유지될 듯**

축협중앙회가 지난11월23일 배합사료가격을 평균4% 인하한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간 이후 일반배합사료 업체들도 12월에서 1월까지 사료포당 평균 200원을 인하하는 특별할인판매에 나서고 있다.

배합사료업체들의 이같은 할인판매로 배합사료가격은 IMF이전보다 3-4% 인상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합사료업체들의 이같은 할인판매는 축협중앙회가 사료원료곡물의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구매한 원료가격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양축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할인판매와 관련해서 일반배합사료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원료들이 안정된 가격에서 구매됐으나 10월들어 원료구매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이 원료들이 사료원료로 이용되는 2월에는 배합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를 인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할인판매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배합사료가격은 현재의 공장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수원 보호지역 소규모 축산농 분뇨자원화시설 우선지원**

농림부는 축산분뇨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팔당호등 4대강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내년에 팔당호,낙동강,영산강,금강의 사수원지역과 새만금호 유역의 소규모축산농가 분뇨자원화 시설을 위해 보조6백16억원과 용자 3백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각도별로 농협과 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1개소이상씩 설치운영해 축분퇴비의 사용을 확대하고 도단위로 2-3개소씩 축산분뇨액비화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축산분료를 최대한 퇴비화 액비화해 농지에 사용케하여 산성화된 토질을 개선하고 유기질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재개 다시 표명으로 부상**

새정부 수반의 지난 11월 중국방문후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오리고기 유통업계에서는 12월초를 전후해 내년 1월1일부터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재개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정도로 중국산오리고기 수입재개가 급부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재개 배경은 지난 11월 새정부수반의 중국방문시 중국당국이 무역역조 시정을 요구하면서 가금육 수입재개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우리정부관계자는 관계자를 파견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이와관련 농림부 가축위생과 담당자는 내년 상반기 관계자를 파견하여 질병상황을 면밀히 검토한후 국제위생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경우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중국의 가금육 수출상황을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으며 수입이 최대한 지연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정부 건의문을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 **오리고기 소비 년말연시 특수로 소비상황 다소 호조**

육용오리 산지가격이 약세를 면치못하는 가운데 12월중순이후 오리고기 소비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 차이는 있으나 년말연시를 전후하여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오리고기 유통상황이 다소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통업자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사육농가들의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종전보다 2-3일 앞당겨진 48일령전후에서 이뤄지고있고 육용오리 가격도 하락세가 멈춰져 출하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경우 12월 육용오리 출하가격은 4천8백원에서 5천원선에 거

래되는데 반하여 출하일령은 47일령 전후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사육수수가 다소증가되고 있는 중부북부지역의 경우 지난 12월 중순이 전까지 수당 거래가격이 4천5백원선까지 떨어져 거래되면서도 출하일령이 50일령을 전후해 거래되던 것이 출하일령이 다소 앞당겨져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반하여 호남지역은 오리사육수수의 증가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출하일령은 큰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리고기 소비는 연말이 지나면 크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육용오리 가격은 현재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사육수수 전년대비 23.7% 증가(98년 6월말 기타가축통계)**

국내 오리사육수수는 98년6월말 현재 전국에서 3백35만2천3백38수가 사육되어 전년말보다 2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가 최근 집계한 98년6월말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오리사육농가수는 8천9백71농가에서 3백35만2천3백38수를 사육하여 호당평균 373수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규모별 사육수수를 보면 1만수에서 3만수이하의 사육수수가 1백41만6천수로 전년말에 비해 41% 증가됐고 200수에서 5백수 이하의 사육수수도 7만8천9백52수로 전년말에 비해 44%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만수에서 5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사육수수 역시 35만3천수로 전년말에 비해 78% 증가됐으며 5만수이상을 사육하는 사육수수역시 10만5천수로 전년말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육규모별 가구수에 있어서는 20수이하를 사육하는 농가수가 6천95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20-50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2백69농가, 50-200수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788농가, 200-500수이하의 사육농가는 296농가, 500-1천수이하는 101농가, 1천수-1천5백수이하는 49농가, 1천5백수-2천수이하농가는 29농가, 2천-3천수이하는 54농가, 3천수-5천수이하는 73농가, 5천수-1만수이하는 88농가, 1만수-3만수이하농가는 115농가, 3만수-5만수이하농가는 11개농가, 5만수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3개농가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은 사육규모별 가구수는 2천수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있어 5천수에서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를 제외하면 전년말에 비해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백수에서 1천수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년말에 비해 83%가 줄어들어 전업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